

제6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제 목	2022학년도 6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시	2022.2.14.(월) 17:00-17:40
		장소	서울캠퍼스 문헌관 1504호
안 건	교수노조 요구사안에 대한 학교측 설명		
주요내용	<p>2022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 심사 및 의결 후 교수노조 관련 학교 설명</p> <p>- 위원장 : 교수노조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경우 학교에 재정적인 영향을 주어 2022학년도 예산안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설명해주려고 한다고 함.</p> <p>교수노조 측 요구사안에 대한 자료를 학생위원들에게 제출함.</p> <p>2020년 12월부터 교수노조 단체교섭이 진행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온 조정안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곧 중재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중재안이 나오게 되면 학교측에서는 그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p> <p>교수노조 요구사안의 주요 내용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9년 기준으로 2020년 연봉을 10% 인상할 것, 2021년 연봉은 2020년 기준으로 3% 인상할 것. 2.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9시수에서 6시수로 조정해 달라 3. 승진과 승급요건을 완화하고 신입 교원 개별 연구계약을 폐지하라. 4. 50세 이상 교원의 건강검진비 50만원을 매년 지급하라. 5.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하는 자녀가 있는 교원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할 것(현재 홍익대학교 진학 시 전액 지원, 타 대학 지원을 요청함) <p>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9년 기준으로 2020년 연봉을 2.5% 인상할 것, 2021년 연봉은 2020년 기준으로 3% 인상하여 소급 지급하라. <p>- 재무팀장 : 교수노조의 여러 요구사항에 따른 추가로 소요되는 교육비를 산출해보았으며 임금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상을 해보았음.</p> <p>교수노조안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재정금액 산출</p> <p>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에 의거, 2020년 2.5% 2021년 3% 임금 인상 시 교원의 보수는 현재보다 43억원이 증가함. 보수 증가액 외 사회보험부담</p>		

금(건강보험료, 연금)이 추가로 발생되어 매년 32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됨. 또한, 추후 추가 임금 인상 요구가 있을 경우 인건비가 급증할 것임. 43억원의 규모는 1,087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수업료에 해당하며 2,179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임금인상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

2010년 이전에 임용된 전임교원 267명을 대상으로 2010년, 2015년, 2020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계산해본 결과 2010년 247억원 2015년 281억원, 2020년 310억원으로 10년간 총 25.4% 인상되었으며 매년 평균적으로 2.3%씩 인상되어 실질적인 임금이 인상되었음.

호봉제교원의 기본급여는 10년간 총 16%, 연평균 1.5%씩 상승하였으며 연봉제교원의 경우 10년간 총 26.8%, 연평균 2.4%씩 상승하였음. 또한, 타대학보다 단가가 높은 초과강사료의 경우, 10년간 세 차례 단가인상을 통해 10년간 156%, 연평균 9.9%씩 상승하였음. 그리고 정기적인 급여 이외에 비정기적인 급여도 10년간 총 15.3%, 연평균 1.4%씩 상승하였음.

타대학 대비 등록금의존율이 높은 상황에서 13년간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감축 및 폐지로 재정적 한계에 봉착하였음. 전임교원의 기본급여 뿐만 아니라 전체 소득이 증가하였기에 임금인상 요구는 학교의 재정상황 고려시 수용하기 어려움. 만일 교수노조 요구안 수용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자제하고 비용절감노력을 통해 관리운영비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학금을 포함한 학생경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임.

첫째 임금인상 요구안 이외에 둘째 노조간부처우개선 사항(지회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을 부총장급으로 처우하고 지회부위원장을 처장으로 처우)의 경우 보직수당, 업무추진비 및 유류대가 발생하며 연간 92백만원 규모임. 셋째 연구근로조건(책임시수 감축과 연구년 보장)의 경우 연간 6시수의 책임시수 감소에 따라 결국 현재 전임교원의 1/3을 보충해야 하며 신규교원 충원 가정 시 최대 103억원이 소요됨. 또한 6년 근무 후 연구년 보장의 경우 타 전임교원이 연구년교원의 강의를 대체해야 하므로 초과강사료가 8억이 추가로 소요됨. 넷째, 복리후생지원(건강검진비와 자녀학비 지원)의 경우 건강검진비는 매년 2억5천만원, 자녀 학비의 경우 25억원이 소요됨. 특히 자녀학비의 경우, 홍익대학교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타 학교 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본교의 자녀에 대해서는 학비가 지원되고 있음

교수노조 요구안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총 183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임. 183억원은 4,641명의 수업료에 해당하며, 9,30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9,302명은 장학금 수혜를 받는 총학생의 46%에 해당함.

- 위원장 : 학교의 제한된 자원을 구성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록 교수노조와의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없지만, 예산의 변경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등심위에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공개하게 되었다.

- **(세종)비대위원장** : 아직 교원이 배정되지 않은 강의가 많다고 함. 언제까지 확정이 되는지 질의함.

- **사무처장** : 교무처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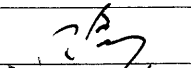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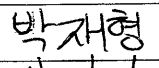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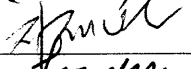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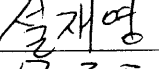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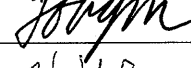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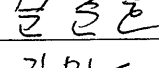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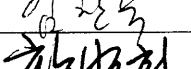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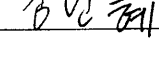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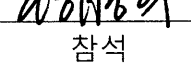
- **(서울)비대위원장** : 책임시수가 줄면, 매년 이야기가 나오듯이, 현재도 높지 않은 전임교원 확보율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 43억원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국가장학금 지급에도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

- **위원장** : 교수들의 책임시수 감소 요구는 연구 시간 확보 등을 위해서 매년 있었다. 학교 입장에서는 연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연구 활동을 위하여 책임시수를 낮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하는 발전적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세종)비대부위원장** : 대면 및 비대면 강의를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학교 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간 배정이 확정되었는지 질의함. 관리요원이 있는지도 질의함.

- **사무처장** : 빈 강의실을 활용하여 비대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계획 중이다. 따로 관리자는 없으나 미화 용역을 통해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 **위원장** : 정보공유 차원에서 교수노조의 의견을 등심위에 전달한 것을 확인하며 폐회를 선언함.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참석위원	위원장	음 선 필		위원	박 재 형	
	위원	차 재 연		위원	설 재 영	
	위원	김 주 연		위원	문 준 호	
	위원	임 찬 숙		위원	김 민 혜	
	위원	황 병 희				
참석현황	참석대상	9명	참석	9명	불참	· 명
작성자	재무팀 간사 박병혁		작성년월일		2022.02.14	